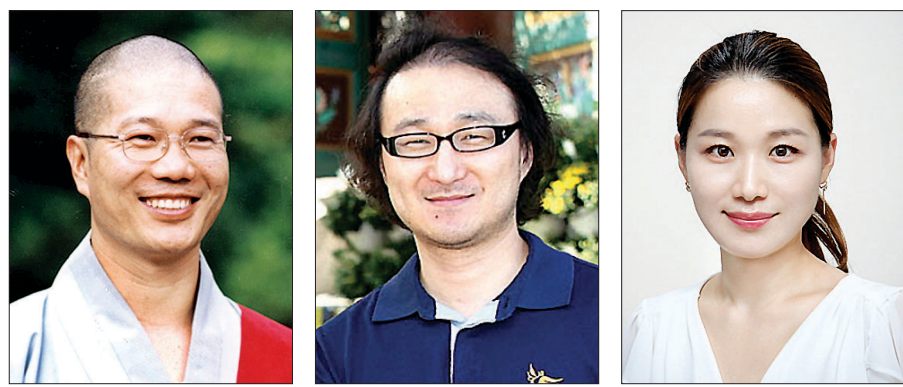


문화 속에서 만난 佛敎

프로젝트 음원으로 대중과 더 가까이

한정일 씨 '한스 브리즈-어떤 인연'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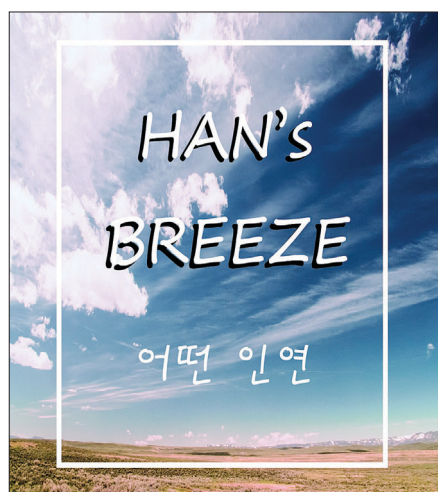
작사 법현 스님, 예술감독 한정일, 보컬 박보은

"불교음악을 일반인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늘 안타까웠어요. CCM처럼 불교 음악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싶었죠. 이번에 음원으로 출시된 어떤 인연은 대중적 찬불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불교적 소재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 불음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대중적 찬불가로

불자 비불자에게 불음 전하고자

가을에는 발라드곡 발표 예정



'한스 브리즈' (Han's Breeze) 프로젝트 음원 표지 이미지

가 곡을 쓰고 법현 스님(열린선원장)이 작사를 맡았으며 노래는 보컬리스트 박보은 씨가 불렀다. 이 곡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물수제비를 뜨는 정경을 인연이라는 주제로 풀어내고 있다. 남녀 간의 인연은 물론 세상의 모든 인연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의 의미를 담고있고 있어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작사를 한 법현 스님은 "대학시절에 데모하면서 즐겨 불렀던 곡 중에 '흔들리지 않게'라는 노래가 있다. 나중에 그 곡이 CCM이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 불교에도 이렇게 종교에 상관없이 대중적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작사를 하게 되었다. 우리 찬불가도 의식곡이나 행사용 외에 대중들이 일상 속 어디서든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많이 나오기를 기원하다"며 바람을 전했다.

보컬리스트로 참여한 박보은 씨는 드라마 '형수님은 열아홉' OST 작업에 참여한 정도로 실력과 가수이며 현재는 태고종 성주암에서 12년 동안 피아노 반주를 맡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한스 브리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대중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한정일 씨는 "11월을 전후한 가을에는 계절에 어울리는 발라드풍의 곡으로 대중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장르에 구애 없이 대중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으로 부처님의 뜻을 담고자 한다. 불자가 아닌 분들도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불교적 정서를 전달할 것"이라며 계획을 전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어떤 인연'은 멜론 벅스 등 유수의 음원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요리 혹은 셰프 프로그램 열풍 '유감'

- '꽃밭의 독백'이 주는 교훈 -

노래가 낫기는 그 중 나야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랠까 말은 바닷가에 가 맞아 버렸다.

황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새벽(開開)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 바다에 얼굴이나 비추는 해일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단란 문에 기대 있을 뿐이다. 문 열이라 꽃아. 문 열이라 꽃아. 벼락과 해일(海濤)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이라 꽃아. 문 열이라 꽃아.

미당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 전문이다. '사소(娑蘇) 단장(斷章)'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이 시는 박현거세의 어머니 '사소'가 꽃밭에서 독백하는 형식으로 서두의 염원을 노래한 것이다.

글 서두에 미당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을 인용한 까닭은 최근 방송계에 열풍이 불고 요리(혹은 셰프) 프로그램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이다.

'집밥 백선생', '한식대첩', '삼시세끼', '냉장고를 부탁해' 등이 대표적인 인기 요리 프로그램이다. 물론, 세 프로그램 모두 장점은 있다.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진행하는 '집밥 백선생'은 누구나 쉽게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한식대첩'은 한국의 전통 음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맛이 있는지 일깨워 준다. '삼시세끼'는 산간지역이나 바닷가 지역에서의 생활을 그림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삶의 가치를 높여 주고, '냉장고를 부탁해'는 스타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재미와 사소한 재료들로 요리하는 법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런 요리 프로그램들은 장점만큼이나 단점을 지니고 있다. 아니, 장점은 적고, 단점은 많다고 봐야겠다.

김도연 작가는 최근 (작가회의 통신) '열풍과 음식'이라는 글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열풍은 기교하게도 정부나 언론 같은 제도권에서 조장하는 형식을 통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군부 독재정권 시절 위정자들은 국민의 관심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열풍의 대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무인 정책을 썼다. 그것은 매우 공공연하게 선전되고 유포되었다. 우리



독재정권이 만든 3S 열풍과 최근 불고 있는 요리 열풍의 공통점은 국민을 우민화하고 그 기저에는 대중주의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다른 점은 3S 열풍은 권력이 조장한 반면 요리 열풍은 대중이 자발적으로 일으켰다는 것이다. 사진 위는 '집밥 백선생', 아래는 '냉장고를 부탁해'

세상의 단 맛이야 많을 테지만 깨달음의 단 맛에 견줄 수 없어

가 흔한 사례로 드는 3S 정책 같은 것이 그것인데, 국민의 눈과 귀를 스포츠와 섹스와 스크린으로 솔리게 한 뒤 국정을 농단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었다. <중략>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국민이 자의로든 타의로든 가장 미쳐 있는 것은 음식과 요리인 것 같다. 바야흐로 음식, 요리 열풍이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것이다. <중략>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성별도, 계층도, 세대도, 정치적 이념도, 지역도, 계급도 모두 백기투항하는 것이다. <중략> 우리 국민의 정치적 환경이 심해진 건 주지의 사실이다. 불행해진 국민은 정치적 환멸이나 기대감의 상실에 대한 욕망의 대리 투사 대상을 찾아야만 했는데, 내 생각에 우리 국민이 찾아낸 대상이 바로 가장 본능적인 감각에 충실한 음식이었던 것 같다. 가정적으로 불행하거나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집의 아이들보다 설탕과 소금에 집착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면 너무 과장된 논리일까?"라고 주장했다.

매우 일리 있는 주장이다. 김도연 작가의 글에서 알 수 있듯 독재정권이 만든 3S 열풍과 최근 불고 있는 요리 열풍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공통점은 국민을 우민화하고 그 기저에는 대중주의가 깔려 있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3S 열풍은 권력이 조장한 반면 요리 열풍은 대중이 자발적으로 일으켰다는 것이다. 필자가 서두에 인용한 '꽃밭의 독백'은 최근 불고 있는 요리 열풍에 적지 않은 메시지를 준다.

'노래가 낫기는 그 중 나야도'라는 표현에서 노래는 아마도 시를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래가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왔다'는 것은 아무리 최상의 노래인 시일지라도 육도윤회의 삶 안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발굽을 쳐 달랠까 말은 바닷가에 가 맞아 버렸다'는 표현도 세속적인 욕망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어서 시인은 '황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고 표현한다. 육근(六根)의 욕망이 얼마나 덧없는지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벼락과 해일(海濤)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이라 꽃아. 문 열이라 꽃아.'라고 주술사처럼 간절히 염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꽃은 물론 깨달음의 상징일 것이다.

달고, 짜고, 시고, 쓰고, 맵고, 감칠맛이 돌고 이런 허를 자극하는 맛들은 결국 단 맛이라는 하나의 맛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 단 맛은 '안수정등(岸樹井藤)'의 일화에서 벼랑 끝에 매달린 사내가 맛보는 꽃밭과 다르지 않다. 이 세상의 단 맛이야 많지만, 깨달음의 단 맛에 견줄 수는 없을 것이다.

유용오 작가

양산 불광사 '함께하는 삶을 위한 산사문화제'

8월 30일, 불광사 대웅전 앞 마당서

경남 양산 불광사(주지 문수)는 8월 30일 불광사 대웅전 앞 마당에서 '함께하는 삶을 위한 제2회 불광사 산사문화제'를 개최한다. 어울림 한마당으로 마련되는 1부 공연에서는 장애인·다문화 가족 및 기관장의 노래자랑, 풍바 등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2부에서는 '정대준과 박은옥 초청 산사음악회'가 진행된다. 음악회에는 청풍중창단, 국악, 파파밴드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펼친다. 아울러 부대 행사로 생활

도자기 전시와 만다라 작품전, 동천 이현도 선생의 전통 한지 작품 등 다양한 전시도 준비된다. 음악회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육법공양과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된다. 불광사 주지 문수 스님과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은 장애인 가정의 자녀 20명, 다문화 이주여성 6명에게 각 30만원씩 지원된다. 이어지는 만발공양에서는 메밀국수를 마련 산사를 찾는 방문객에게 대접할 계획이다.

주지 문수 스님은 "불광사 주지로 부임 한 후 사회적 회합을 위해 고심을 하던 중 장애인들과 인연이 되어 산사문화제를 진행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055)381-5508 **하성미** 기자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 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역사 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한국의 민중의술

제1편 처방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얇은 체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풀 나고 멧덩이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가격 14,000원 (배송비 별도) | 구입 054)734-1767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 ② 의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낫지 않는다.

대원문재현선사님의 72번째 저서 출간!

대원문재현선사님으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9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전 30권중 29권 출간! 수산, 분양, 섭현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문재현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승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우리를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